

피앤디솔라, 군산교육발전재단에 30억 장학금 기탁 협약

2037년까지 20년간
매년 1억5천만원씩

군산2국가산업단지 유수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피앤디솔라가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30억원의 장학금 기탁 협약을 했다.

9일 시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문동신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피앤디솔라 유한열 한국남동발전 사장, 박식, 나정석, 오희중, 이종목 공동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번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피앤디솔라는 올해부터 2037년까지 20년간 매년 1억5천만원씩 총 30억원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탁할 예정이다.

한국남동발전 유한열 사장은 "50만 국제 관광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인재양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군산시의 교육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영진이 솔선수범해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문화를 정착시켜 군산시민의 행복에 앞장서는 대표 에너지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나정석 피앤디솔라 공동대표는 "군산시의 미래 동량을 양성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미래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발전진흥재단 장학 사업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군산2국가산업단지 유수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피앤디솔라가 지역의 우수한 인재 육성을 위해 30억원의 장학금 기탁 협약을 했다.

김양현 시 수도사업소장은 "군산의 발전을 위해 흔쾌히 장학기금을 기탁해 주신데 머리 숙여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기탁해주신 장학금은 군산의 미래 100년을 이끌어 갈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소중히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피앤디솔라는 지난해 2월 군산시의 함께 지역 내 유수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18.7MW 수상태양광발전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업체로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 및 신재생에너지 관계자들의 선진 견학장으로 사급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진안군청 역도팀, 남자역도선수권대회 메달 6개 획득

진안군청 역도팀이 제90회 남자역도선수권대회에서 금 1개, 은 2개, 동 3개 총 6개의 메달을 획득해 '진안홍삼의 힘'을 확실히 보여주며 눈부신 성과를 거뒀다.

최근 경남 고성군 역도전용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85kg급에 출전해 인상 165kg를 들어 올려 금메달을 획득한 팀 내 에이스 유동주(25세)선수는 용상에서 195kg, 합계 360kg을 들어 올려 대회 은메달 2개를 추가했다.

유동주 선수는 진안군청 역도팀 최고참으로 2016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했으며, 작년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체전에서는 인상, 용상, 합계 금메달을 모두 휩쓸어 3관왕을 차지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에 강원 양구에서 개최된 전국실업역도선수권대회에서 동메달 2개를 목에 걸었던 박민호(22세) 선수는 이번 77kg급 대회 출전해 동메달 3개를 추가해 기량을 과시했다. 한편, 제90회 남자역도선수권 대회는 10일까지 열린다.



유동주 선수 박민호 선수

전주대 권성진·김민송, 'NS Cookfest 2018' 최우수상

전주대 외식산업학과(학과장 김지용) 권성진(2학년), 김민송(2학년)팀이 최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NS Cookfest 2018' 요리경연대회에서 가정간편식 일반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1천만 원의 상금을 받았다.



'봄 바다를 품은 타락죽'이라는 주제로 한 이 요리는 김제 쌀과 완도 미역 등 신선한 로컬푸드를 주재료로 했다.

특히 기존의 타락죽에 미역 넣어 영양을 더했다. 심사위원들은 "NS국 페스트가 추구하는 건강에 부합된 조리법이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가정 간편식(HRM)으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하며 호평했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외식산업학과 권성진, 김민송 학생은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메뉴 구성에서부터 시연까지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스태프를 꼼꼼히,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했다.

학과장 김지용 교수는 "최근 외식산업은 간편함이 트렌드이지만 건강한 식재료 선택과 정직한 마음으로 요리해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며 수상 학생을 격려했다.

/기동취재반

익산시, 대학생 봄철 농촌봉사활동 실시

익산시는 2018 대학생 봄철 농촌일손돕기 농촌봉사활동을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익산시 전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대학생 봄철 농촌봉사활동은 7개면 14개 마을에서 연세대 학생 2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고추심기, 메론 심기 등 하우스를 비롯해 밭작물, 모판상자 나르기 등과 같은 벼농사 일을 도우며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봄철 일손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작지만 커다란 힘이 됐다.

연세대 학생들의 농촌봉사활동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익산시농민회와 연계하여 2012년부터 시작되어 현재 7년차로 봄, 여름, 가을 3번에 걸쳐 연인원 1,000여 명의 참여로 익산시 농촌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마을 잔치도 하는 등 대학생들이 우리농업과 우리농산물의 소중함을 배우고 SNS를 통한 우리농산물을 홍보도 하는 계기도 되고 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북대 학생들, 전주 원도심 재생사업 공모 선정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 LINC+사업단의 다학제융합캡스톤디자인 프로젝트팀(이한용, 김서현, 김영준, 임현우, 오재연, 조태형 학생, 지도교수 김영선)이 전주시 원도심 도시재생 꿈꾸 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9일 전북대에 따르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친체원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행된 이 사업에는 모두 23개 팀이 저마다의 아이디어로 지음을 겨뤘다.

선정된 전북대팀은 지난 3월부터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도시 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고 '세대'를 이어주는 문화소통 공간 조성'을 주제로 사업을 설계해 공모에 참여했다.

선정된 사업 내용은 남부시장 하늘정원에 부모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어울리며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주시의 또 하나의 문화관광 명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최종 선정된 9개 팀 중 전북대의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 참여한 후 학생기업을 창업한 '비스커즈 팩토리' (대표 이준희)도 포함돼 있어 북북 뛰는 학생들의 아이디어로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있는 전북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8년 1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016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도순총)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68-9700 • 업무국 FAX 268-9703 • 편집국 FAX 268-9704			
전주시	중앙지사	남원지사	고창지사
010-9845-4113	010-9388-6874	02-3886	563-6989
삼천지사	인후지사	김제지사	임실지사
010-2333-4791	246-6855	547-8855	010-9642-2725
서신지사	순천지사	완주지사	진안지사
010-2333-4791	255-2404	246-8855	433-3084
서신지사	광복지사	남원지사	정읍지사
272-9417	253-6844	02-3886	538-3787
호지사	군산지사	순창지사	장수지사
010-9845-9335	010-6789-0338	02-3886	010-3882-9157
	익산지사	부안지사	무주지사
	859-9323	010-2425-4182	010-2300-423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